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음 2월 7일) 제15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4.13 총선 D-29 국민의당 경선 발표 지연 해석 부분

전주 을 · 완주진무장 '미확정'

전략공천설 제기돼 추측만 난무
천정배계 2명 발표 전주 을 빠져
완주무진장, 임정엽 놓고 격론설

국민의당의 일부 전북 지역구 경선 발표가 미뤄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14일 23개 단수 공천지역과 19개 경선지역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서 전북은 경선지역으로 전주 갑(강동호·이기동·김광수·이관승)과 김제부안(송강·나유인·곽인희·김종희)이 결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총10개 선거구 중 전주 을과 완주진무장 등 2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주 병(정동영), 군산(김관영), 익산 갑(배승철·이한수·고상진·정재혁), 익산 을(전정희·조배숙·김연근·박기덕), 정읍고창(유성엽), 남원임실순창(이용호·이성호·김원종) 등 8개 선거구를 모두 발표했다.

또 ▲익산시장 이영훈 정현을 경선, ▲광역의원(전주 2) 오정례, 이도영 경선, (익산 4) 박노영, 박종열, 박현주, 박형창 경선 ▲기초의원(전주 2) 김주연으로 각각 결정했다.

지역정파 안팎에서는 전주 을과 완주진무장 선거구 역시 이날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뤄지면서 추측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후보를 역시 노심초사하면서 초진장 상태다

본선에 진출하려면 당연한 통과 절차지만, 탈락할 경우 이미지 추락 등 입게 될 피해가



하이팅을 외치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선대위원장을 사퇴한 김한길 의원은 불참했다.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선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예비후보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컷

오프 대상의 수위가 어디까지 해달릴 지 판단

하기 쉽지 않아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경선 배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설과 함께 전략공천설이 제기

되는 등 갖가지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다.

특히 천정배 의원계인 김호서, 김정호 예비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만 경선 발표가 빠져 있어 '뭔가 있는' 경선 심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완주진무장에 대해서는 최근 당원간 입당 갈등을 빚은 임정엽 예비후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놓고 내부에서 격론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나온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이직 발표하지 않은 이

유를 알지 못했다. 천정배 의원계 때문이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후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당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을은 장세환 엄운상, 조형철 김호서, 한명규, 성치두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완주진무장은 임정엽, 이돈승 김정호, 민경선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신광영 기자

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역량 집중

내달 시작 중앙부처 예산편성 대비해 이달부터
50개 핵심사업 부처 실무자 사업내용 사전설명

전북도가 2017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전북도는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시기인 오는 4월을 대비해 이번 달부터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 역량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50개의 A급 핵심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사무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사전설명하고 부처 동향을 일일보고 체계로 유지해 상시 파악할 계획이다.

도가 선정한 50개의 A급 핵심 신규사업(2월 29일 기준)은 대규모 SOC사업과 예타사업, 신성장동력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업이 반영되면 향후 안정적으로 재정이 투입돼 지

역성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사업은 세부적으로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개설 사업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예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예타), 부안~고창(부창대교) 국도(77호선) 건설(예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예타), 새만금 농산업교육 공동실습장구축사업(예타), 서부 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 사업, 새만금 사업 시범지역 조성 사업,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NPS 복지플러스 건설(예타),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사업 등이 있다.

도는 한발 앞선 대대적인 50대 신규사업의 홍보를 위해 3월말경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3월말경 국회 방문활동을 추진하고 시장군수정책협의회(3월말 예정) 시 국

가예산 활동계획을 시·군에 전달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4월~5월초에는 부처별 국·과장·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2회이상 방문 정부정책의 부합성 및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사전 중점 설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예산편성의 윤곽이 드러나는 5월에는 과소변경, 미반영사업에 대해 부처별 기초시장·장·차관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 매일 INDEX

4면 '스포츠크럽' 여행상품 만든다

6면 ISA 가입 첫날 금융당국 '긴장모드'

도, 이종석 대외협력국장 2급 승진

전북도가 이달 15일자로 이종석 대외협력국장(신진)의 2급 승진을 단행했다.

이종석 국장은 57년에 태어났고, 고창고등학교, 전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 공직에 입문, 행정지원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정영수 기자



국립세종로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